



# 진주·진양지부 축산물직판장 개설

##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위한 축산물직판장으로



취재 : 권상혁 기자

“도시공해 해결사 돼지고기”, “성인병 예방에는 돼지고기 섭취” “고객이 원하는 만큼 부위별 판매를 해드립니다”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고객 제일주의의 프로 정신으로 지난 11월 6일 축산물직판장을 개설한 진주·지양지부!

본회 진주·진양지부(지부장 : 박만중)는 농림수산부로부터 2억원을 배정받아 진주시 중앙시장 원예조합 채소공판장 입구에 농림수산부 지정 축산물직판장(한우전문판매점)을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 최상백 부회장, 하오조 경남도협의회장, 신태식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장, 최영진 경남도축산과장 및 경남도내 각 지부장 그리고 축산관련단체장, 진주시내 주부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진주시 역사와 같이해 온 중앙시장은 진주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부경남지역의 도소매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장으로서 명칭에

걸맞게 항상 상인과 주부들이 붐비고 있다. 원예조합채소공판장 입구에 축산물직판장을 개장한 이유는 이 지역이 상권의 중심이며, 또한 목이 아주 좋아 채소를 구입해가는 도매상인들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축산물을 많이 구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진주·진양지부는 지난 '84년 26명의 회원이 뜻을 같이해 지부를 설립, 그 당시는 양돈업 규모가 아주 영세하였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부족과 정보의 부재로 돼지가격의 등락이 춤을 추듯 했고, 지부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해 동물약품회사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박만중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협회의 중요성을 인식, 회원수도 현재 37명으로 늘어났으며, 회원들의 평균사육두수도 500두로 늘어 전업규모의 사육형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박만중 지부장은 내년의 냉장돼지고기 수입자유화와 '97년의 냉동돼지고기 수입자유화에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결과가 이번 축산물직판장 개장이었다고 말했다.

진주 · 진양지부는 평소 지부운영에 있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사업과, 이번 축산물직판장 개장으로 결실을 본 공동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직판장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4단계인 유통구조를 2단계로 과감히 줄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농림수산부 지원금 2억원은 연리 5%에 3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고, 32평의 넓은 매장에 깨끗한 진열장과 냉동실, 급냉실, 숙성실 등 완벽한 시설을 구비하고,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모두 5명의 직원을 채용, 하루에 소 1마리, 돼지 10마리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 2마리, 돼지 15~20마리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쇠고기의 경우 100g당 특등육(안

심, 등심, 제비추리) 1,550원, 상등육(우둔, 설도, 전지) 1,460원, 중등육(양지, 갈비) 1,250원 등으로 시중 정육점보다 kg당 20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100g당 특등육(안심) 400원, 상등육(등심, 목심) 400원, 중등육(전·후지, 목젓살) 350원 등으로 시중보다 kg당 800원을 싸게 판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직판장 사업은 생산자의 손과 소비자의 손을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이룩,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물량조달은 쇠고기의 경우 경남낙농업협동조합에서 순수 한우만 조달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회원들의 돼지를 산지시세보다 10%비싸게 구입,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가격설정은 연동제를 실시, 지부 고시가격을 생체 kg당 설정하여 연일 1kg당 150원을 상회하거나 하락하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박만중 지부장은 "장차 축산물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돈인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와 기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